

서울대 간호학 박사학위논문 분석을 통한 간호학 연구의 경향¹⁾

안경주²⁾, 함은미³⁾, 박광희⁴⁾, 강지연⁵⁾, 박성희⁴⁾, 이희주⁵⁾,
류세양⁵⁾, 이명선⁶⁾, 김금순⁷⁾, 최명애⁷⁾, 이소우⁷⁾, 이은옥⁷⁾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대상자인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신체, 정신, 사회, 영적 문제와 관련하여 폭넓게 많은 개념들을 연구해온 응용과학으로, 간호학이 하나의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과학적 지식체를 정립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간호지식체란 간호와 관련된 인간현상의 인식, 경험 및 이해를 이론적 수준으로 체계화한 정보로써,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론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홍여신, 1998).

국내 간호학의 연구는 1961년 대학원 과정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연구활동이 전개되었고 1978년에 박사학위과정 개설 이후 전문직으로서의 학문발전의 주춧돌을 마련하게 되었다. 간호학 학위논문들

은 60년대 54편, 70년대 413편, 80년대 1523편으로 급속한 증가를 보여주었고 90년 이후에는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김희걸 & 이영숙, 1995), 이러한 양적 팽창은 간호학의 지식체 확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간호학의 발전과 학문으로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의 학위논문들을 종합 분석하여 지금까지의 연구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의 간호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박정숙 & 박청자, 1995). 특히, 박사학위논문은 간호학문의 지표라 볼 수 있는데(김미자, 2000) 새로운 간호 지식체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지식체를 확장하기 위해서 간호학적 질문을 명료화하고 관련이론을 적용하는 숙고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간호학적 지식체라 할 수 있기 때문에(김의숙 등, 2004) 박사학위 논문을 분석하는 것은 간호학의 연구 방향을 탐색할

1) 본 연구는 2001년도 동창회 교육연구재단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2) 책임연구자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3) 건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4)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박사수료생

5)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박사졸업생

6)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7)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간호학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1960년부터 1991년 8월까지의 학위논문 제목에 나타난 주요어를 분석한 연구(고옥자 등, 1994), 학위논문 중에서 실험연구논문 150편을 분석한 연구(김명자, 이명선, 이미형, 이화인, 1994)가 있으며 1960년부터 1991년 8월까지 국내 간호학관련 학위논문 1779편을 분석한 김희결과 이영숙(1995)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선행 간호학 학위논문 분석은 대부분 연구설계, 연구대상자, 자료수집방법 등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양적 분석을 하였고 논문의 주제나 내용에 대한 내용 분석이 미흡하였으며 따라서 이들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학의 본질이나 연구방향을 유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 학문간의 지식 공유와 국외 학술지에 등재하기 위해 MeSH에 등재된 주요어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박사학위논문에서 사용된 주요어를 분석하여 용어의 일치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간호학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간호학 박사학위논문 전수를 조사하여 간호현상에 대한 방법론적 특성과 연구에 이용된 간호이론, 간호철학 등을 총괄적으로 분석하며, 연구에 나타난 주요어를 조사하고 간호 메타파라다임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이 자료를 바탕으로 1989년부터 13년간 간호학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1989-2001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들을 분석하여 논문 속에 나타난 방법론적

특성과 사용된 이론, 간호철학, 세계관, 주요어 등을 분석하여 간호 지식체를 개발, 정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학위논문에서 사용된 방법론적 특성을 분석한다.
- 2) 학위논문에서 사용된 이론과 그 수준, 지식개발 전략, 지식체 구축유형을 분석한다.
- 3) 학위논문에서 반영된 철학과 세계관을 분석한다.
- 4) 학위논문의 주제어를 간호의 4가지 메타파라다임에 따라 분석한다.
- 5) 학위논문의 주제어를 MeSH의 주요어와 비교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을 분석하여 기술한 서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이다.

2. 연구대상 논문

본 연구대상은 1989년부터 2001년까지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총 69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13년간의 논문들을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반부(1989-1995년)와 후반부(1996-2001년)로 임의 분류하여 연구 경향을 알아보았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이루어졌으며 9회의 집담회를 통해 논문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분석도구는 기존 문헌을 기초로

연구자들이 개발하여 사용하였으며 분석도구의 내용은 크게 연구 방법론적 분석과 내용적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 방법론적 분석은 연구유형, 연구 대상자 및 자료 수집방법, 측정변수 및 중재 종류를 분석하였고 내용적 분석은 주요어 분석, James & Dickoff의 분류에 따른 이론수준, Carper의 지식체 유형에 따른 논문주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연구의 주요어는 간호메타파임의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와 MeSH 주요어와의 일치도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자료는 연구자들간의 수차례 토론을 거쳐 연구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한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분석이 완료된 자료는 SPSSWIN 9.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틀의 항목에 따라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방법론적 분석

1) 연구유형

연구의 유형은 양적 연구 54편(78.3%), 질적 연구 12편(17.4%)이었고 Q-방법이나 트라이앵글레이션 등의 연구방법을 이용한 논문은 3편(4.3%)으로 나타났다(Table 1). 연도별로 1989-1995년에는 양적연구가 73.3%였으나 1996-2001년에는 82.0%로 증가한 반면 질적 연구는 23.4%에서 12.9%로 감소되었다. 양적 연구 중에서 측정도구 개발이나 모형개발에 해당하는 방법론적 연구(methodological research)가 33.4%로 나타났고 유사실험 연구가 29.0%이었다.

Table 1. Type of research

(n=69)

Classification	year	1989-1995	1996-2001	total
		n(%)	n(%)	n(%)
Quantitative research				
Survey		7(23.3)	2(5.1)	9(13.1)
Case study		1(3.3)	0(0.0)	1(1.4)
Methodological		7(23.3)	16(41.0)	23(33.4)
Quasi-experimental		6(20.0)	14(35.9)	20(29.0)
Pre-experimental		1(3.3)	0(0.0)	1(1.4)
Subtotal		22(73.3)	32(82.1)	54(78.3)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1(3.3)	1(2.6)	2(2.9)
Phenomenological		2(6.7)	1(2.6)	3(4.3)
Others		4(13.3)	3(7.7)	7(10.2)
Subtotal		7(23.3)	5(12.8)	12(17.4)
Others (Q-method, Triangulation)		1(3.3)	2(5.1)	3(4.3)
Total		30(100)	39(100)	69(100.0)

2) 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가 42.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도 38.4%였다. 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1989-1995년 6.7%에서 1996-2001년 10.3%로 증가하였으며 주로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

로 이루어졌다. 또한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75.3%의 연구가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노인 대상의 연구는 11.0%로 나타났다.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 대부분은 영아와 엄마와의 모아관계를 보기 위해 영아를 관찰한 경우였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989-1995년에는 없었으나 1996-2001년에는 3편이 발표되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year	1989-1995	1996-2001	total
			n(%)	n(%)	n(%)
Type	Patient		14(41.2)	17(43.6)	31(42.5)
	Family		2(6.7)	4(10.3)	6(8.2)
	Nurse		5(14.7)	3(7.7)	8(10.9)
	Non-patient		13(38.2)	15(38.5)	28(38.4)
	Total		34(100)	39(100)	73(100)*
Developmental stage	Child		3(8.8)	4(10.3)	7(9.6)
	Adolescent		0(0.0)	3(7.7)	3(4.1)
	Adult		27(79.4)	28(71.8)	55(75.3)
	Elderly		4(11.8)	4(10.3)	8(11.0)
	Total		34(100)	39(100)	73(100)*

* 중복체크

3) 대상자 동의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를 위한 동의를 얻는 것은 윤리적 측면에서 필요한 일이다. 이에 관한 결과는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대상자의 동의를 71.0%가 받

았으나, 이중 구두 동의가 대부분이었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는 8.6%에 불과하였다. 대상자의 동의를 제시한 것은 1989-1995년도에 58.1%에서 1996-2001년도 81.6%로 증가하였다.

Table 3. Consent of the subjects

		year	1989-1995	1996-2001	total
			n(%)	n(%)	n(%)
Yes	oral consent		15(48.4)	28(73.7)	43(62.4)
	written consent		3(9.7)	3(7.9)	6(8.6)
No			13(41.9)	7(18.4)	20(29.0)
Total			31(100)	38(100)	69(100)

4) 측정 도구의 개발과 신뢰도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도구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설문지였으며 생리적 측정도구의 사용은 5.1%로 나타났다. 학위 논문에서 사용한 설문도구는 기존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가 46.4%, 기존 도구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32.1%, 연구자 스스로 개발한 경우가 21.5%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9-1995년에는 자가 개발을 하여 사용한 경우

가 9편이었으나 1996-2001년에는 3편으로 감소하였고 기존도구를 수정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7편에서 19편으로 증가하였다. 설문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의 신뢰도를 제시한 경우는 75%였으며 해당논문에서의 신뢰도를 제시한 경우는 90.5%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25%, 해당논문에서의 신뢰도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9.5%로 나타났다.

Table 4. Development and reliability of the instruments

		year	1989-1995	1996-2001	total
			n(%)	n(%)	n(%)
Type of Instrument	physiologic instruments		1(4.2)	2(5.7)	3(5.1)
	questionnaire		22(91.7)	31(88.6)	53(89.8)
	others		1(4.2)	2(5.7)	3(5.1)
	total		24(100)	35(100)	59(100)*
Instrument Development	use as established		8(33.3)	10(31.3)	18(32.1)
	develop by oneself		9(37.5)	3(9.4)	12(21.5)
	modify established		7(29.2)	19(59.4)	26(46.4)
	total		24(100)	32(100)	56(100)*
Reliability (at the development)	suggest		19(73.1)	32(76.2)	51(75.0)
	no suggest		7(26.9)	10(23.8)	17(25.0)
	total		26(100)	42(100)	68(100)*
Reliability (at the doctoral dissertation)	suggest		19(95.0)	38(88.4)	57(90.5)
	no suggest		1(5.0)	5(11.6)	6(9.5)
	total		20(100)	43(100)	63(100)*

* 중복체크

5)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종류

독립변수로 사용된 중재는 운동요법이나 사회적 지지 등 신체적 중재와 심리사회적 중재보다 정보제공 및 교육의 형태인 인지적 측면의 중재를 더 많이 이용하였다(Table 5). 또한 1989-1995년보다 1996-2001년에

중재변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로는 불안, 우울 등 심리사회적 변수가 51.2%로 가장 높았으며 지식이나 만족도, 자기 효능감 등 인지적 변수가 26.7%, 활력징후, 통증 등 신체적 변수가 22.1%로 나타났다.

Table 5. Independent & dependent variables

		year	1989-1995	1996-2001	total
			n(%)	n(%)	n(%)
Independent variables	physical		5(29.4)	7(24.1)	12(26.1)
	cognitive		7(41.2)	16(55.2)	23(50.0)
	psychosocial		5(29.4)	6(20.7)	11(23.9)
	total		17(100)	29(100)	46(100)*
dependent variables	physical		5(16.1)	14(25.5)	19(22.1)
	cognitive		7(22.6)	16(29.1)	23(26.7)
	psychosocial		19(61.3)	25(45.4)	44(51.2)
	total		31(100)	55(100)	86(100)*

* 중복체크

2. 연구의 내용적 분석

1) 연구의 이론 수준

James와 Dickoff의 분류에 의하여 박사학위 논문의 이론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의 이론수준은 상황생성 30.6%, 요인

관련 26.0%, 상황관련 21.8%, 요인분리 18.8%의 순서로 나타났다. 요인분리 연구는 1989-1995년 32.3%에서 1996-2001년에는 7.9%로 감소하였으며 상황관련 연구가 1989-1995년 9.7%에서 1996-2001년에 21.8%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Table 6. Theory level of research by James & Dickoff

(n=69)

Theory level	year	1989-1995	1996-2001	total
		n(%)	n(%)	n(%)
Factor-isolating		10(32.3)	3(7.9)	13(18.8)
Factor-relating		9(29.0)	9(23.7)	18(26.0)
Situation-relating		3(9.7)	12(31.6)	15(21.8)
Situation-producing		8(25.8)	13(34.2)	21(30.6)
Others		1(3.2)	1(2.6)	2(2.8)
Total		31(100)	38(100)	69(100.0)

2) 지식 개발방법
 각 논문의 과학적 지식개발 방법별로 분석한 결과는 귀납적 방법을 이용한 논문이 14편(20.2%), 연

역적 방법을 이용한 논문 17편(24.7%), 환원적 방법을 이용한 논문 38편(55.1%)으로 나타났다.

Table 7. Scientific reasoning

(n=69)

	year	1989-1995	1996-2001	total
		n(%)	n(%)	n(%)
inductive		7(22.6)	7(18.4)	14(20.2)
deductive		8(25.8)	9(23.7)	17(24.7)
retroductive		16(51.6)	22(57.9)	38(55.1)
Total		31(100)	38(100)	69(100.0)

3) 지식체 구축유형
 Carper(1978)가 간호학 구성 지식체를 유형별로 분류한 기준에 따라 박사학위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경험적 지식이 82.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미적 지식이 13.0%, 윤리 9%, 개인적 지식 1.4%로 나타났다(Table 9).

Table 8. Type of nursing knowledge

(n=69)

	year	1989-1995	1996-2001	total
		n(%)	n(%)	n(%)
Ethical knowledge		2(6.5)	0(0.0)	2(2.9)
Esthetical knowledge		8(25.8)	1(2.6)	9(13.0)
Personal knowledge		0(0.0)	1(2.6)	1(1.4)
Empirical knowledge		21(67.7)	36(94.8)	57(82.6)
Total		31(100)	38(100)	69(100.0)

4) 간호이론의 목적
 박사학위논문들에서 이론을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9>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가 46.5%였으며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

구는 23.2%였다. 또한 이론을 적용하여 검증하려는 목적을 가진 연구도 11.6%였으며 이론을 분석하는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는 1989-1995년에 12.9%였으나 1996-2001년에는 한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Use of existing theories

Use	Year	1989-1995	1996-2001	total
		n(%)	n(%)	n(%)
Application		13(41.9)	19(50.1)	32(46.5)
Development		0(0.0)	1(2.6)	1(1.4)
Test		5(16.1)	11(28.9)	16(23.2)
Analysis		4(12.9)	0(0.0)	4(5.7)
Application+Test		2(6.5)	6(15.8)	8(11.6)
Not available		7(22.6)	1(2.6)	8(11.6)
Total		31(100)	38(100)	69(100)

5) 사용된 이론의 종류

지금까지 박사학위논문에서 사용된 이론가의 이론들을, 간호이론가에 의해서 개발된 이론을 활용한 논문, 타 학문분야에서 개발된 이론을 활용한 논문,

그리고 간호이론과 타 학문분야에서 개발된 이론을 동시에 활용한 논문 등으로 분류하여 연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10. Theory of theorist used in theses

Existence of theory	Year	1989-1995	1996-2001	Total sum
		n(%)	n(%)	n(%)
Theses using nursing theory		5(16.1)	3(7.9)	8(11.5)
Theses using the theory developed from nursing related disciplines		18(58.1)	22(57.9)	40(58.0)
Theses using synthesis nursing theory and theory developed from nursing related disciplines		1(3.2)	2(5.3)	3(4.3)
Theses not using theory		7(22.6)	11(28.9)	18(26.2)
Total		31(100)	38(100)	69(100.0)

지난 12년간 박사학위논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이론은 간호학 분야에서 개발된 이론들보다는 타 분야에서 개발된 이론들을 활용한 논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 분야의 이론에서 나온 명제를 검증하거나 간호와의 관련성을 검증한 논문이 전체 학위논문의 5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andura의 자기효능이론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에 비해 오렘, 로이, 버나드, 펜더 등 간호이론가의

이론을 검증하거나 활용한 논문은 전체 학위논문의 1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추이에 있어서도 1989-1995년의 16.1%보다 1996-2001년에는 7.9%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학위논문에서 이론가의 이론을 사용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논문도 전체의 26.2%나 달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1996-2001년에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 총괄적 분석

1) 철학

학위논문에서 대부분 철학적 입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본 연구자들이 학위논문 내용을 분석하여 연구의 바탕이 되는 철학을 유추하였다. 정량적인 실험연구들 대부분이 경험적 실증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논문들은 1989-1995년

64.5%에서 1996-2001년 92.1%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현상학적 입장에서 수행된 논문들은 1989-1995년에 32.3%였었지만 1996-2001년에 5.3%로 현저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해석학적 입장에서 담론분석을 시도한 연구가 1편 있었으며, 여성주의 관점에서 미혼모의 삶에 대한 참여연구를 시행한 연구가 1편으로 나타났다.

Table 11. Philosophical background of the authors

Background	Year	1989-1995	1996-2001	Total
		n(%)	n(%)	n(%)
Empirical positivism		20(64.5)	35(92.1)	55(79.7)
Phenomenology		10(32.3)	2(5.3)	12(17.5)
Hermeneutics		1(3.2)	0(0.0)	1(1.4)
Feminism		0(0.0)	1(2.6)	1(1.4)
Total		31(100)	38(100)	69(100)

2) 세계관

학위논문에 나타난 저자의 세계관 역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논문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학위논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연구내용을 토대로 연구에 나타난 저자의 세계관을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2>에 제시되었다. 세계관은 개념모형에 깔려있는 인간-환경에 대한 철학적 가정을 반영하는데

기계론적인 관점으로 연구가 진행된 논문은 1989-1995년의 6.5%였으나 1996-2001년에는 23.7%로 증가하였으며, 유기론적 관점의 논문은 전체의 84%를 차지하였다. 또한 세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의 관점에서 변화성 관점으로 연구된 논문은 전체 논문의 95.7%이며 항구성 관점에서 수행된 논문은 4.3%로 나타났다.

Table 12. Authors' world view

World view	Year	1989-1995	1996-2001	Total
		n(%)	n(%)	n(%)
Philosophical assumption	Mechanism	2(6.5)	9(23.7)	11(15.9)
	Organism	29(93.5)	29(76.3)	58(84.1)
Total		31(100)	38(100)	69(100)
Viewpoint to the world	Change	30(96.8)	36(94.7)	66(95.7)
	Persistence	1(3.2)	2(5.3)	3(4.3)
Total		31(100)	38(100)	69(100)

3) 메타파라다임과 주요어

본 연구대상 학위논문들이 간호학의 메타파라다임인 인간, 건강, 환경, 간호의 영역내에서 어느 영역의 연구를 주로 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논문의

주요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영역은 인간 영역으로 38.4%였으며 건강과 간호가 각각 23.1%, 환경이 15.4%로 나타났다 (Table 13).

Table 13. The area of key concepts

Area	Year	1989-1995	1996-2001	Total
		n(%)	n(%)	n(%)
Human		23(41.8)	32(36.4)	55(38.4)
Health		13(23.6)	20(22.7)	33(23.1)
Environment		7(12.7)	15(17.0)	22(15.4)
Nursing		12(21.8)	21(23.9)	33(23.1)
Total		55(100)*	88(100)*	143(100)*

* 중복체크

4. 주요어 분석

1) 주요어 사용 현황

본 연구에서 분석된 69개의 논문에서 사용한 주요어를 연구대상자에 따라 환자, 가족, 여성, 노인, 아동과 청소년, 지역, 간호사, 그리고 기타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 가장 많은 27편(39.1%)의 논문이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는데, 질환별로 보면 암환자 대상이 7편(25%), 류마티스 환자 대상 논문이 5편(17.9%), 임종 환자와 심장질환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각각 3편(10.7%), 그리고 기타 혈액투석 환자와 당뇨병환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논문들에서 주로 사용된 주요어는 자기효능, 자기간호, 이론합성, 통증, 삶의 질, 그리고 운동의 순이었다. 두 번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5편(7.2%)으로 주로 뇌졸중, 치매, 암환자 가족에 대해 시행되었으며, 사용된 주요어를 살펴보면 가족

스트레스, 가족 대처, 그리고 집단적 지지의 순이었다. 세 번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10편으로 전체 논문의 14.5%였다. 가장 많이 사용된 주요어는 모성과 부모의 전환과정과 모아상호작용에 관한 것이었고, 기타 주요어로는 월경전후기 불편감, 중년후기 건강증진, 골변량 감소예측, 그리고 미혼모 등이었다. 네 번째는 노인에 관한 논문은 6편(8.6%)이었고 일상생활 기능이 가장 많은 주요어로 사용되었으며, 그 외 자아통합감과 심리적 안정, 심리적 안녕감, 환경, 죽음, 그리고 집단화상 등이 있다. 다섯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6편(8.6%)이었다. 청소년 흡연, 건강지식 생성, 아동학대, 모아애착 증진 프로그램 등을 주요어로 사용하였다. 여섯 번째, 지역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5편(7.2%)이었고 금연프로그램 효과, 보건교육, 직업성 스트레스, 비용-편익 분석, 그리고 의료시설 이용 변화양상에 관해 연구되었다. 일곱 번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 4편은

윤리적 문제와 의사결정, 리더쉽을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기타 학위논문 6편은 간호조직과 간호 수행의

질을 주로 다루었으며, 병원 이미지에 관한 것이 있었다.

Table 14. Frequently used key words by subject

subjectn	(%)	frequently used key word
Patient	27(39.2)	self-efficacy self-care quality of life pain, exercise
Family	5(7.2)	family stress family coping social support
Women	10(14.5)	transition role-attainment middle-aged women
elderly	6(8.7)	life satisfaction self integrity psychologic well-being
child & adolescent	6(8.7)	smoking cessation knowledge promotion child abuse
Community	5(7.2)	utilization of medical service occupational stress smoking cessation program cost-benefit analysis
Nurse	4(5.8)	ethics decision making leadership
Others	6(8.7)	nursing productivity organizational structure quality of nursing service
total	69(100)	

2) 논문에서의 영문 주요용어와 MeSH 용어의 비교분석

논문을 대표하는 단어인 주요어는 다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최근 국내의 간호관련 잡지가 MEDLINE에 등재되면서 영문 주제어를 MEDLINE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MeSH(Medical Subjective Heading)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학문 분야간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논문의 영문 주제어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MeSH 용어와 얼마나 부합되는지 그 실태를 살펴본 결과, 69편의 논문에서 영문 주제어는 270개였으며, 그 중 MeSH용어와 일치하는 경우는 33개

(12.2%), 일치되는 MeSH 용어로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30개(11.1%), 그리고 전혀 일치하지 않는 영문 주제어는 207개(76.7%)를 차지하였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이 가족 적응(family adaptation)과 같이 2개 이상의 용어로 조합이 된 경우가 많았다.

Table 15. Used key words' accordance with MeSH's word

the degree of accordance	number of key words(%)
exactly same	33(12.2)
automatically guided to MeSH's word	30(11.1)
exactly not same	207(76.7)
Total	270(100)

V. 논 의

본 연구의 대상인 69편의 논문은 1989년-1995년에는 7년간 31편인데 비해 1996-2000년까지 6년간 38편으로 박사학위논문의 수가 점차 증가하였으며, 연구방법에서 조사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방법론적 연구와 유사실험연구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점차 이론 개발이나 이론 적용이라는 연구 목적을 가진 박사학위논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에 실무에 적용가능한 이론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1985년 미국의 박사논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상 논문의 78.4%가 임상간호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실무중심의 연구가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홍여신, 1998).

대상자의 특성 중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989-1995년에 6.7%였으나 1996-2001년 10.3%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가족을 중요시 여기며 만성병 환자가 발생하면 가족원이 돌볼 수밖에 없는 한국의 의료 환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다. 특히 노인

에 대한 연구가 11.0%였으나, 이미 현재 고령화사회를 넘어섰고 2019년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통계청, 2001) 노인에 관한 간호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또한, 1996-2001년에 미혼모, 청소년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접근이 시도된 것은 병원 현장에 국한되었던 대상자를 지역사회에 확대하여 사회 전반적인 건강문제를 다루려는 시각이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학위논문의 29.0%가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였다는 언급이 없었으며 서면동의를 받았다고 한 연구는 전체의 8.6%에 불과하였다. 1949년 뉴 램베르그 강령과 1975년 개정된 헬싱키 선언은 모든 경우 사전동의를 요구하며 사전동의에는 연구목적, 기간, 절차와 예상되는 불편감이나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사전동의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연구자는 복사본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않았다(이혜경, 양영희, 구미옥 & 은영, 2000). 특히 질적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경험세계 깊숙이 참여하는 연구 상황이므로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연구대상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 도구로 89.8%의 연구에서 설문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생리적 측정도구를 이용한 경우는 5.1%에 불과하였다. 이는 근거 기반 연구(evidence based research)를 지향하는 간호 연구에 제한점이 될 수 있다. 객관적인 생리적 측정도구와 심리적, 인지적 상태를 측정하는 설문지를 같이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측정을 한다면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인 측면의 기능을 사정하는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의료현장에서의 진단과 치료술은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지식과 기술은 임상간호에서도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간호 전문화를 위해 high technology를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적 기능 변화를 측정하는 논문이 간호학적 측면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독립변수로 이루어지는 간호중재는 교육, 정보 제공 등 인지적 측면의 중재가 50.0%로 가장 많았으며 종속변수로는 불안, 우울 등 심리사회적 측면의 변수를 가장 많이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962년부터 1991년까지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중 실험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김명자 등(1994)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중재유형이 정보제공 및 교육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간호 영역중 환자교육은 더욱 중요시 여겨지고 있으며 향후 800개의 건강증진센터가 설립되어 비만, 금연, 영양관리 등의 건강증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따라서 건강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간호인력 개발이 필요하다(연합뉴스, 2004). 그러므로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교육을 중재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간호계의 새로운 연구분야로 대두되고 있는 보완대

체요법과 관련된 중재를 수행한 학위논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다양한 간호중재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James & Dickoff의 분류에 의한 이론 수준은 1989-1995년에 요인분리 수준이 32.3%로 가장 많았으나 1996-2001년에는 상황생성 수준이 34.2%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김의숙 등(2004)이 5개 대학 박사학위논문 277편을 분석하여 기술적 지식체 40.4%, 설명적 지식체 48.4%, 처방적 지식체 11.2%라고 보고한 결과와 다르다. 본 연구결과는 서울대학교 일개 대학에 한정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논문에 나타난 이론 구축방법은 환원적 방법이 55.1%로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을 병합하여 사용했으며 귀납적 방법은 주로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연역적 방법은 가설을 중심으로 한 실험연구들에서 볼 수 있었다.

Carper는 간호학에서 지식체의 기본 유형을 경험주의(empirics), 미학(aesthetics), 개인적 지식(personal knowledge), 윤리(ethics)로 분석하였다. 경험주의는 경험적 사실을 탐구하고 창안하고 설명하며, 추상적인 이론을 개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미학적 유형에서 간호학은 인간의 유일하고 특유한 주관성을 표현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유형에서 중요한 방법은 타인을 지각하고 공감하는 감정이입(empathy)이다. 개인적 지식은 간호사의 치료적 자기 이용(therapeutic use of self)를 포함한 대인관계 과정을 포함한 상호작용을 통해 전체성과 통합성을 증진시킨다. 윤리적 유형은 동기와 관련된 도덕적 가치판단을 포함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무에 초점을 둔다. 본 연구에서는 82.6%가 경험적 지식에 속하였으며 윤리적 지식과 개인적 지식은 각각

2.9%, 1.4%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4가지 지식의 기본 유형은 간호학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인식하는데 필요하며 그 유형 중 어느 한가지만 고려되어서는 안 되므로 향후 간호지식체 개발을 위해서는 4가지 영역의 지식체가 모두 연구되어야 된다(Stein, Corte, Colling & Whall, 1998).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환자, 가족, 의사, 간호사의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간호사가 윤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환자의 권리의식 변화로 대상자에게 간호 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한성숙 등, 1998) 간호학 지식체 유형에서 윤리가 차지하는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의 학위논문에서는 이론의 사용 목적이 대부분 이론의 임상 활용과 검증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간호학 박사학위논문은 간호학의 이론을 개발하고 분석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위논문 가운데 58.0%의 논문들이 다른 분야의 이론들을 이용하였으며 간호이론을 사용한 경우는 11.5%였다. 초기 간호학 연구에서부터 간호지식체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다른 분야에서 개발된 이론과 지식을 빌려온 이론(borrowed theory)을 이용하여 간호 관련현상을 서술하고 설명하며 예측하는데 사용하였다. 반대로 간호이론(nursing theory)들은 간호 고유의 현상들을 서술하고 설명하며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이다. 그러나 간호는 인간 생활의 여러 측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른 학문분야의 이론들을 간호학내 이론으로 정련화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많은 다른 분야의 이론들이 연구되어 왔다. Meleis는 간호학이 응용과학으로 다른 분야의

이론을 추구하여 재합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 하였으나 이렇게 다른 분야에 의존하는 간호과학의 지식체가 확대된다면 간호과학의 지식체는 다른 학문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간호학의 필수적인 과학적 원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 의존할 수도 없고 의존해서도 안된다(Kenny, 1999). 이와 같이 타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론을 간호학에 도입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나, 간호학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선결과제 가운데 하나가 간호고유의 이론적 지식체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간호학내에서 이미 개발된 이론들의 실무적용 가능성과 타당성 및 그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임상 실증적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논문들의 대부분은 경험적 실증주의를 철학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시기 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1989년에서 1995년까지는 64.5%의 논문들이, 1996년 이후에서는 92.1%의 논문들이 경험적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실증주의자들은 이론바 형식적 합리성을 옹호한다. 형식적 합리성이란 “과학적 지식은 경험에 의해 정당화된 지식”이고 이론의 선택은 경험과 논리에 의해 기계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개념이다(신중섭, 1990). 즉 실증주의자들의 세계관은 유기적이기보다는 기계적이고 역동적이기보다는 항구적이어야 한다. 반면 현상학, 해석학, 여성학 등은 합리성의 주관성을 강조하는 역사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관점에서는 이론이 보편적이고 장기간 존재하며 수용 가능한 존재론적 범위 안에서 변화 가능한 것이라 간주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저자들의 세계관은 대부분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저자들의 세계관과 철학적 배경이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 연구대상 논문들은

간호의 고유한 특성을 역동적이고 유기적이라는 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으나 연구 방법론의 기초가 되는 철학적 배경으로는 수량과 증거를 강조는 실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거기반 연구를 강조하는 풍토와 관련이 있으며 간호학 자체가 가지는 과학과 미학이라는 속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을 유기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면서 동시에 과학적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전체가 아닌 일부를 연구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철학과 세계관의 불일치는 문제점이기 보다는 간호학의 속성에서 발견되는 특성이라고 본다. 또한, 일련의 한 현상을 바라보는 총체적 관점(holistic view)은 인간을 전인적 존재로서 바라보는 반면 과학자들이 인간의 전체성에 대한 포괄적 언급없이 인간의 단편적인 여러 측면을 연구하는 것도 때로는 바람직한 일이며(Kim, 2000),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의 목적에 따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Fawcett(1984)은 인간, 환경, 건강, 간호를 간호과학의 관심현상을 구체화하는 단위이며 간호이론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채택하였다. 이 네 영역의 간호 패러다임은 간호 관련 현상의 범위를 지시하며 간호에서 연구하는 개념과 현상을 이해하는데 사용된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간호의 메패러다임 중 환경영역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가족이나 사회적 지지 같은 사회적 환경에 관한 논문은 있었으나 물리적 환경에 관한 논문은 기상상태에 관한 것 한편 뿐이었다. 일반적으로 환경은 세가지 측면의 특성으로 나누어 물리적, 사회적, 상징적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 환경은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로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으며 사회적 환경은 사람들이 상호관계하는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으로 구성된다. 이 두개의 환경과 달리 상징적 환경은 가치, 신념,

역사, 지식 같은 관념적 요소와 규칙 같은 규범적 요소와 역할, 문화 같은 제도적 요소로 구성되어 물리적 형태는 없으나 사람들 마음속에 존재한다(Kim, 2000). 환경은 인간과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에게 영향을 주어 질병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거나 회복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므로 향후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상징적 환경의 최적화라는 실제적인 목적으로 연구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주요어는 자기효능, 자기간호, 모형구축, 삶의 질, 운동, 그리고 통증 등이었으며,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영문 주제어를 MeSH 용어와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영문 주요어 270개 중에서 207개(76.7%)의 주요어는 MeSH 용어와 일치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 6년동안 가정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영문주제어가 얼마나 MeSH와 일치하는지를 분석하였더니 전체 897개의 영문주제어 중 MeSH 용어로 볼 수 없는 주제어가 702개로 78.2%에 달했다는 김병성과 김수영(1998)의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간호학회와 산하학회에서 매년 발행되는 간호학술지 중 지역사회간호학회지를 제외한 7종의 간호학술지에 창간호부터 1999년까지 실린 논문 1,784편에 사용된 논문의 영문주제어가 얼마나 MeSH 용어와 일치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간호학술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문주제어는 MeSH 용어와 21.3%만이 일치하고 있었다는 김지현(2001)의 보고와도 비슷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학위논문의 영문주제어와 MeSH 용어를 비교 분석한 결과 그 일치도가 낮은 이유는 학위논문 작성시 어떠한 주제어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나 표준화가 확고히 마련되어 있기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학문간 지식공유와 표준화 측면에서 일관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모든 논문의 주요어를 선정할 때에 MeSH 용어와 일치하도록 선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호학 박사학위논문을 전반적으로 탐색하여 간호연구의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에 대한 전망을 위해 수행된 서술적 연구이다.

분석 대상은 1989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대학교 간호학 박사학위논문 69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방법론적 특성, 내용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논문에 나타난 주요어를 메타파라다임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MeSH 용어와 영문 주요어와의 일치도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법론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구유형은 양적 연구 중 측정도구 개발이나 모형개발 연구가 많았다. 대상자의 유형은 환자(42.5%), 일반인(38.4%), 간호사(10.9%), 가족(8.2%)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구분했을 때 성인(75.3%), 노인(11.0%), 아동(9.6%), 청소년(4.1%)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를 위한 대상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는 8.6%였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로 이용한 측정도구는 설문지(89.8%), 생리적 도구(5.1%) 등이었다. 독립변수는 인지적 중재(50.0%)가 높았으며 종속적 변수에서는 심리사회적 변수(51.2%)를 가장 많이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용적 분석에서 상황생성 연구(30.6%)가 많았으며 지식개발방법으로 환원적 추론(55.1%)을

많이 사용하였고, Carper의 간호 지식체 유형별 분석에 의하면 경험적 지식(82.6%)을 많이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에서 이론을 사용하는 목적은 적용(46.5%)해보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한 이론의 유형은 타분야의 이론을 사용하는 경우(58.0%)가 간호이론을 사용하는 경우(11.5%)보다 많았다.

셋째, 철학적 입장은 경험적 실증주의(79.7%)가 대부분이었으나 논문에 나타난 세계관은 유기론적 관점(84.1%)과 역동성을 중시하는 경우(95.7%)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를 간호 메타파라다임 영역에 따라 분류한 결과, 인간 영역(38.4%)이 가장 많았으며 환경 영역(15.4%)이 적었다. 주요어 분석에 의하면 대상자가 환자인 경우(39.2%)에 자기효능감, 모형구축, 자기간호가 많이 언급되었으며 영문 주요어를 MeSH 용어와 비교한 결과 일치되는 경우는 12.2%에 불과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앞으로 요구가 증대될 영역에 대한 간호연구가 필요하다. 노인, 환경, 보완대체요법 등에 관한 연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노인과 만성질환자 증가와 함께 환자의 가족에 관한 연구도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될 것이다.
2. 타학문에서 빌려온 이론보다 간호이론에 대한 적용과 검증이 부족하여, 간호학 박사학위논문이 가지는 간호학 고유의 지식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간호이론에 대한 검증과 적용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3. 간호학 연구에서 대부분이 실증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실험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하나의 철학에 집중되는 현상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원화된 철학적 배경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주요어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한 의미를 다른 용어로 표현한 경우가 많아 향후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5. 향후 전문간호사제도가 활성화되면 전문간호사 고유의 간호중재에 관한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옥자, 김상혜, 김희걸, 이금재, 이영숙 (1994). 학위 논문의 주요어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4(1), 58-69.
- 김명자, 이명선, 이미형, 이화인 (1994). 우리나라 석 박사학위논문 분석: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4(1), 96-114.
- 김미자 (2000). 간호학의 미래: 국제적 조망. *대한간호학회지*, 30(5), 1099-1110.
- 김병성, 김수영 (1998). 가정의학회지 논문의 영문주제어 선택에 있어서 MeSH 용어사용여부와 선택정확도. *가정의학회지*, 19(7), 531-536.
- 김의숙, 김광숙, 김대란, 김은정, 성경미, 신현숙, 신혜경, 이영자, 정석희 (2004). 박사학위논문에서 나타난 간호학 탐구경향. *대한간호학회지*, 34(2), 315-323.
- 김지현 (2001). *간호학술지 논문의 저자선정 영문주제어와 MeSH 용어의 비교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걸, 이영숙 (1995). 우리나라 간호학 및 간호학 관련 학위논문 분석. *대한간호*, 34(5), 68-79.
- 박정숙, 박창자 (1995). 통증 개념을 다룬 국내 간호 연구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5(1), 30-44.
- 신중섭 (1990). *역사적 합리주의*. 서울: 가을천지.
- 연합뉴스 (2004). 7월 30일자 신문. 국민건강사업 대대적 실시.
- 이원희, 강경아 (2003) 역. *간호학에서 이론적 사고의 본질*. 서울: 현문사.
- 이혜경, 양영희, 구미옥, 은영 (2000). *간호연구개론*. 제2판. 서울: 현문사.
- 통계청 (2001). *장래인구추계*. 서울.
- 한성숙, 황경식, 맹광호, 이동익, 엄영란 (1998). 한국의 장기이식과 관련된 윤리적 고려사항의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8(1), 26-36.
- 홍여신(1998). *간호전문직의 과제와 발전방향*. 서울: 현문사.
- Baldacchino, D., & Draper, P. (2001). Spiritual coping strategies: a review of the nursing research literatur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4(6), 833-841.
- Fawcett, J. (1984). The metaparadigm of nursing: Present status and future refinement. *Image*, 16, 84-87.
- Kenny, J. W. (1999). *Philosophic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for advanced nursing practice*. Sudbury, MA: Jones & Bartlette Publishers.
- Kim, H. S. (2000). *The Nature of theoretical thinking in nurs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Stein, K. F., Corte, C., Colling, K. B., & Whall, A. (1998). A theoretical analysis of Carper's ways of knowing using model of social cognition. *Scholarly Inquiry for Nursing Practice*, 12(1), 43-60.

Abstract

Prospective of Nursing Research based on Analysis of Doctoral Dissertations in Nurs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¹⁾

An, Gyeong Ju²⁾, Ham, Eun Mi³⁾, Park, Kwang Hee⁴⁾, Kang, Ji Yeon⁵⁾,
Park, Sung Hee⁴⁾, Lee, Hee Ju⁵⁾, Ryu, Sea Ang⁵⁾, Yi, Myungsun⁶⁾,
Kim, Keum Soon⁷⁾, Choe, Myoung-Ae⁷⁾, Lee, So Woo⁷⁾, Lee, Eun-Ok⁷⁾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rend of nursing research by analyzing doctoral dissertations of nursing colleg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Method:** The doctoral dissertations used in this study were 69 thesis from 1989 to 2001. The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theory, philosophy and world view in these thesis were explored. Key word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metaparadigm and were compared with MeSH term. **Result:** There were 54 dissertations of quantitative research and 12 dissertations of qualitative research. Most of subjects of the thesis were patients with 20~65 years old. The written consent to participate in research was not described in great part of thesis. As to measurement, questionnaire was most frequent used. In independent variables cognitive nursing interventions were used frequently. Psychosocial variables as a dependent variable were used mainly. In theory level of research, situation-producing research was performed. In type of nursing knowledge according to Capter many dissertations studied about empirical knowledge. More than half of doctoral dissertations used borrowed theory from nursing related disciplines. Most of studies were done within empirical positivism and organic viewpoint. Key words related to the concept of environment among four metaparadigm has been insuffici

ently studied. English key words in doctoral thesis were out of accordance largely with MeSH term English.

Conclusion: These results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nursing theory for nursing knowledge body.

1) Funded by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2)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 Kunkook University

4) Doctoral graduat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5) Doctoral candidat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6) Associat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Researcher, RINS, SNU

7)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Researcher, RINS, SNU